

크리스토퍼 제이 크리스티 (CHRISTOPHER J. CHRISTIE)
공화당원

제가 4년전에 여러분께 투표를 요청했을때 뉴저지 주는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몇십억 적자였으며 몇 백억의 부채를 부담하고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115개의 세금 및 수수료 가 올랐습니다, 결과로 뉴저지가 미국에서 세금이 제일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뉴저지에 거주하는 시민 4명 중 단 1명만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식을 키워왔으며 손자손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 가 이 불안정한 길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저는 항상 뉴저지의 미래는 과거보다 밝을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주를 위해서 무엇을 달성해야하나 질문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기위해 우리는 정부를 좀 더 다운 사이징하고,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높은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정부의 부패 및 오용 행동을 뿌리뽑아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달성한 일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세금을 안 올리면서도 우리 주 예산을 안정시키고 6년전 존 콜 (Jon Corzine) 시기 때보다 돈을 적게 소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을 협력시켜 모두 불가능하다는 개혁들을 수행해냈습니다. 우리는 뉴저지 납세자들에게로부터 앞으로 30년간에 연금 및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혁하여 120억 달러를 세이브하였습니다. 우리는 재산세에 캡을 두어 세금 성장률을 지난 2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시켰습니다. 민간 부문의 세금을 낮추므로 150,000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트렌튼의 운영 법을 완벽하게 주 시민들이 존경할수있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뉴저지의 시민을 돕기위해 양당이 협력하였으므로 이 모든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대부분의 뉴저지 시민들은 이제 우리 주가 올바른길로 가고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뉴저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기 위해 할일이 남아있기에 당신의 투표를 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우리 주에 손상을 가장 많이 입힌 대폭풍 썬디가 지나간 후 지속적으로 뉴저지를 불굴의 의지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우리 주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실패하고있는 학교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세금 경감을 지속적으로 수행시켜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협력하여 이 주를 계속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뉴저지 시민들이 살기좋은, 아이들을 키우기 가장 이상적인 주로 만들고자합니다.